

고립·은둔 청년과 동거하는 가족의 어려움 유형화와 영향요인

김민지* · 김현경**

I 알기 쉬운 개요

최근 고립·은둔 청년이 늘어나면서, 이들과 함께 사는 가족의 어려움도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는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 참여한 고립·은둔 청년과 함께 사는 235가구를 분석하여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의 유형을 도출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가족의 어려움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다수는 청년을 이해하기 어려운 심리적 부담부터 돌봄 부담, 시간적 부담, 사회관계적 제약, 경제적 어려움까지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중간 수준 이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55.3%). 그 다음으로는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유형이 나타났다(32.8%). 마지막으로 경제적 부담은 가장 낮지만, 고립·은둔 청년의 행동 이해와 돌봄 부담, 시간적 부담, 그리고 사회관계적 제약 측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형이 나타났다(11.9%). 또한 가족 관계가 친밀하고 소득이 높을수록 어려움이 전반적으로 낮은 유형에 속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고립·은둔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는 어려움의 유형과 관련이 없었다. 가족의 어려움은 지속 기간보다 관계의 질과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 가족의 어려움 유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인간생애와 혁신적 디자인 융합 전공, 석박통합과정

**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인간생애와 혁신적 디자인 융합 전공, 교수, 교신저자, hyoungkim@yonsei.ac.kr

투 고 일 / 2026. 2. 25.

심 사 일 / 2026. 5. 6.

심사완료일 / 2026. 5. 19.

I 초록

본 연구는 고립·은둔 청년과 동거하는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심리적 부담(이해 곤란), 돌봄 부담, 시간적 부담, 사회관계적 제약, 경제적 어려움의 다섯 가지 지표로 구성하고 지표들의 결합 양상에 따른 잠재 프로파일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가족 친밀감, 가구 소득, 그리고 고립·은둔의 지속 기간이라는 관계적·경제적·시간적 맥락이 잠재 프로파일 분류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22년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의 가구단위 자료에서 고립·은둔 청년과 동거하는 235가구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Mplus를 활용한 잠재 프로파일 분석과 R3STEP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고립·은둔 청년과 동거하는 가족의 어려움 잠재 프로파일은 심리사회적 집중 고부담형(11.9%), 다영역 저부담형(32.8%), 다영역 중상부담형(55.3%)의 세 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심리사회적 집중 고부담형은 경제적 부담 수준은 가장 낮았으나 심리적 부담(이해 곤란), 돌봄 부담, 시간적 부담, 사회관계적 제약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다영역 저부담형은 모든 어려움 지표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다영역 중상부담형은 모든 어려움 지표에서 중간 수준 이상의 부담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 친밀감과 가구 소득은 가족의 어려움 프로파일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는데, 구체적으로 가족 친밀감과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다영역 저부담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가족 친밀감이 낮을수록 심리사회적 집중 고부담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의 고립·은둔 지속 기간은 프로파일 분류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고립·은둔 청년 동거 가족 내에서도 가족이 겪는 어려움의 양상과 수준이 이질적으로 나타남을 규명하고, 가족 친밀감과 가구 소득이 이러한 이질적인 프로파일 소속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이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립·은둔 청년 가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획일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가족이 처한 관계적·경제적 맥락과 어려움 프로파일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고립·은둔 청년 가족, 가족의 어려움, 가족 친밀감, 가구 소득, 잠재 프로파일 분석

I. 서론

최근 고립·은둔 청년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립·은둔 청년은 사회적 자본이 결핍된 상태에 놓인 고립 청년과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주로 본인 방이나 집에서만 생활하는 은둔 청년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김성아, 2023).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은 5.2% (약 54만 명)로 2022년 조사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세정 외, 2025). 고립·은둔 청년의 증가는 우울, 외로움과 같은 개인 차원의 심리적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비경제활동 상태의 지속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로도 확장될 수 있다(박규범, 박예은, 윤범식, 최다솜, 2024; 김아래미, 최영준, 김성아, 2023). 특히 고립·은둔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방·납세·교육·근로 등 사회적 의무와 결혼·출산 등의 미이행으로 이어져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가족 해체, 가족 구성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심화할 가능성이 있기에 사회적, 정책적 차원의 개입이 필수적이다(곽미선, 박지영, 2024).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최근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개입은 당사자 개인의 심리상담 지원이나 경제적 지원, 취업 경험 제공을 넘어 이들을 둘러싼 가족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조영아 외, 2024; Dong & Baker, 2022). 이는 청년기의 취업과 결혼 시기가 지연되면서 상당수의 청년이 여전히 원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회적 맥락과도 맞닿아 있다. 실제로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의 72%는 가족과 동거하고 있으며, 고립·은둔 청년은 일반 청년에 비해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비율이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서울특별시, 2022). 또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족이 청년의 기본적인 식사와 일상생활을 챙겨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특별시, 2022).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년의 고립·은둔은 함께 거주하는 가족에게도 심리 정서적 부담을 가중하고, 가족 관계와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김신아, 강연정, 2021; 황순길 외, 2005). 고립·은둔 청년의 가족은 상황을 개선하고 싶으나 방법을 몰라 답답함과 좌절을 경험하거나, 경제적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박규범 외, 2024). 또한 고립·은둔 청년의 존재를 외부에 드러내는 것을 꺼리며, 부끄러움이나 원망과 같은 복합적인 정서를 경험하기도 한다(김신아, 강연정, 2021). 그러나 기존 연구는 고립·은둔 청년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나 지원 방안에 주로 초점을 두어 왔으며(김성아, 2023; 권혜림, 2025; 이정은, 2025), 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의 양상과 그 이질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였다. 특히 동거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어떠한 유형으로 구분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고립·은둔의 지속 기간, 가족 관계, 경제적 상황과 같은 가족 맥락적 요인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와 같이 고립·은둔 청년과 동거하는 가족의 어려움은 다차원적이며, 평균 수준이 유사하더라도 각 차원의 결합 양상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하위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집단을 동질적인 것으로 가정하는 변수 중심(variable-centered) 접근은 이러한 집단 내 이질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Laursen & Hoff, 2006). 따라서 개인 중심(person-centered) 접근을 통해 고립·은둔 청년과 동거하는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의 잠재 유형을 탐색하고 이러한 유형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맥락적 요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고립·은둔 청년과 동거하는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심리적 부담(이해 곤란), 돌봄 부담, 시간적 부담, 사회관계적 제약, 경제적 어려움 차원으로 구분하여 가족의 어려움 내 서로 다른 잠재 유형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가족이 보유한 관계적·경제적 자원과 스트레스 노출 맥락을 반영하는 요인으로서, 가족 친밀감, 가구 소득, 그리고 고립·은둔의 지속 기간이 각 어려움 유형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립·은둔 청년 가족의 다차원적 어려움 유형을 이해하고, 유형 간 이질적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가족 지원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고립·은둔 청년과 동거하는 가족의 어려움

고립·은둔 청년의 발생은 당사자 한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의 삶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선행연구 및 조사에 따르면 고립·은둔 청년과 동거하는 가족은 심리 정서적, 사회관계적, 경제적으로 다차원적인 어려움을 경험한다. 먼저 심리 정서적 측면에서 고립·은둔 청년과 동거하는 가족은 정서적 긴장, 관계 갈등, 돌봄 부담 등을 겪을 수 있다(김혜원, 2022; 황순길 외, 2005). 고립·은둔 청년의 상태를 처음 마주한 가족들은 자녀를 이해하기 어려워 막막함과 당혹감을 느끼며(유민상, 신동훈, 2021) 자녀의 은둔이 지속됨에 따라 자책감이나 절망감, 속상함을 경험하기도 한다(황순길 외, 2005). 또한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반복되는 개입 실패로 인한 실망, 무기력 등 정서적 소진 상태에 빠지기 쉽다고 보고된다(김신아, 강연정, 2021). 사회관계적 측면에서는 고립·은둔 자녀에 대해 걱정하면서도 부끄러워하는 이중적인 정서를 경험하면서 주변에 이야기하지 않고 스스로 감당하며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기도 한다(김신아, 강연정, 2021). 더불어 주변의 시선과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외부와의 관계 단절이 심화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백형태, 김봉년, 신민섭, 안동현,

이영식, 2011). 이는 청년의 고립·은둔이 단지 청년 개인으로만 한정되지 않고, 그 가족이 점차 고립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과반수의 고립·은둔 청년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서울특별시, 2022) 청년의 고립·은둔 장기화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으로도 이어진다(조은영 외, 2025). 2024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실태 조사 결과, 생활비 마련 방법에 관해 ‘가족의 도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7.6%로 가장 많았으며(박규범 외, 2024), 광주광역시의 고립·은둔 실태조사(2023)에 따르면, 가족이 ‘생계 책임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비율은 64.5%에 달했다.

이를 종합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는 고립·은둔 청년 동거 가족의 어려움을 다섯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첫째, 고립·은둔 청년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부담, 둘째, 고립·은둔 청년을 장기적으로 돌보는 것에 대한 돌봄 부담, 셋째, 돌봄으로 인해 개인의 시간 활용이 제한되는 데서 발생하는 시간적 부담, 넷째, 고립·은둔 청년과의 동거로 인해 가족의 외부 사회망이 위축되는 사회관계적 제약, 다섯째, 고립·은둔 청년의 생계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이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 서로 결합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립·은둔 청년과 동거하는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다섯 가지 지표로 구성하고, 지표들의 결합 양상에 따른 잠재 프로파일을 탐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2. 고립·은둔 청년과 동거하는 가족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족 내에서 발생한 사건은 가족이 처한 상황, 자원, 가족 내 역동, 지속 기간 등의 맥락에 따라 가족 전체의 기능과 안녕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Dworkin et al., 2022; McCubbin & Patterson, 1983). 가족 돌봄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와 역동은 돌봄 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Zarit, Polenick, DePasquale, Liu & Bangerter, 2019), 돌봄 제공자가 가족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돌봄에 대한 주관적인 부담감을 낮게 지각한다고 보고된다(Lum, Lo, Hooker & Bekelman, 2014; Tough, Brinkhof, Siegrist & Fekete, 2017). 이는 가족 친밀감이 고립·은둔 청년과 동거하는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 유형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관계적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나 배경 또한 가족 내 발생한 부정적인 사건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Van Horn et al., 2001).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가족이 경험하는 위기 상황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불균형적으로 더 큰 고통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Hall et al., 2022). 이는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족이

위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으며, 동시에 기존에 존재하던 어려움이 위기 상황에서 심화되는 과정에서 경제적 조건이 그 영향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립·은둔 청년과 동거하는 가족은 청년의 생활비와 돌봄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가구 소득은 가족 갈등과 결속에도 영향을 미쳐(맹성준, 한창근, 2019),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의 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고립·은둔 지속 기간은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의 누적 정도와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고립·은둔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체적, 정신적 건강 측면에서 의료 서비스 미충족 위험이 증가하며, 장기간 지속될 경우 행동 문제를 보이는 경향이 보고되었다(Choi, Choi & Jang, 2025; Nonaka, Shimada & Sakai, 2018). 이처럼 고립·은둔의 장기화는 청년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심화시키거나 추가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영향은 가족에게로 확장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의 고립·은둔 상태가 장기화될수록 가족 구성원은 반복적인 좌절과 심리적 소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가족 전체의 삶의 질 저하와 사회적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김신아, 강연정, 2021; 이상욱, 김재희, 박일연, 이선미, 2023; 이은지, 2021). 종합하면, 고립·은둔 청년과 동거하는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가족 친밀감, 가구 소득, 그리고 고립·은둔의 지속 기간이라는 관계적·경제적·시간적 맥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 잠재유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22년 서울특별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조사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의 생활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고자 시행되었으며, 가구단위 실태조사와 개인단위 실태조사, 그리고 심층 인터뷰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가구단위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가구단위 실태조사는 만19~39세의 청년 가구원이 포함된 서울시 거주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주 배우자 6,92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중 가구원에 고립·은둔 청년이 있는 336가구를 1차적으로 추출하였고, 고립·은둔 청년과 동거하는 가족의 어려움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1인 가구 86가구를 제외하였다. 고립·은둔 청년의 판단 기준은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서울특별시, 2022)를 따랐다. 고립·은둔 청년은 고립 청년 또는 은둔 청년의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고립 청년은 정서적 고립 혹은 물리적 고립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경우로 간주하였으며 은둔 청년은 현재 외출을 거의 하지 않으며, 이러한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었고, 최근 1주일간 경제활동, 구직활동, 또는 학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 간주하였다. 또한 고립 청년 또는 은둔 청년의 기준은 충족하였으나 외출을 거의 하지 않거나 물리적으로 교류를 거의 하지 않는 계기가 출산·육아·전업주부인 경우(13가구), 단순한 바쁨으로 인한 경우(2가구)를 제외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최종적으로 총 235가구가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응답자는 가구원 중에 고립·은둔 청년이 있는 235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이며 이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성별 구성은 남성이 96명(40.9%), 여성이 139명(59.1%)이었으며, 연령대는 20대가 15명(6.4%), 30대가 99명(42.1%), 40대가 20명(8.5%), 50대가 44명(18.7%), 60대가 53명(22.6%), 만 70세 이상이 4명(1.7%)이었다. 고립·은둔 청년과의 관계 유형을 살펴보면 본인 75명(31.9%), 부모 89명(37.9%), 형제자매 19명(8.1%), 배우자 43명(18.3%), 기타 친인척 3명(1.3%), 비혈연 관계 1명(.4%), 기타 5명(2.1%)으로 나타났다.

표 1

응답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N=235)

	변수	N	(%)
성별	남성	96	(40.9)
	여성	139	(59.1)
연령대	만 20~29세	15	(6.4)
	만 30~39세	99	(42.1)
	만 40~49세	20	(8.5)
	만 50~59세	44	(18.7)
	만 60~69세	53	(22.6)
	만 70세 이상	4	(1.7)
고립·은둔 청년 가구원과의 관계 유형	본인	75	(31.9)
	부모	89	(37.9)
	형제자매	19	(8.1)
	배우자	43	(18.3)
	기타 친인척	3	(1.3)
	비혈연 관계	1	(0.4)
	기타	5	(2.1)

2. 측정 도구

1) 고립·은둔 청년과 동거하는 가족의 어려움

고립·은둔 청년과 동거하는 가족의 어려움(이하 ‘고립·은둔 청년 동거 가족의 어려움’)은 심리적 부담(이해 곤란), 돌봄 부담, 시간적 부담, 사회관계적 제약, 경제적 부담의 5개 지표로 구성하였으며, 각 지표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심리적 부담(이해 곤란)은 ‘고립 혹은 은둔 생활 당사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하다’ 문항으로, 돌봄 부담은 ‘고립 혹은 은둔 생활 당사자를 언제까지 돌볼 수 있을지 걱정된다’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시간적 부담은 ‘고립 혹은 은둔 생활 당사자를 돌보느라 개인적인 시간이 없다’ 문항으로, 사회관계적 제약은 ‘고립 혹은 은둔 생활 당사자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없다’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경제적 부담은 ‘고립 혹은 은둔 생활 당사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된다’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에서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가족 친밀감

본 연구에서는 가족 친밀감을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와 의사소통 수준을 반영하는 관계적 자원으로 개념화하였다. 고립·은둔 청년 동거 가족의 가족 친밀감은 고립·은둔 청년의 평소 생활 패턴을 묻는 5개 문항 중 가족 관계와 관련된 2개 문항(예: ‘평소 가족과 친밀하게 지내는 편이다’, ‘평소 가족과 대화를 자주 하는 편이다’)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두 문항의 평균 점수($r=.76$, $p<.001$)를 가족 친밀감 지표로 활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친밀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가구 소득

고립·은둔 청년 동거 가족의 가구 소득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한 월 평균 가구 소득으로 측정하였다. 이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및 보너스, 임대수익 등 모든 소득의 합계를 의미한다. 응답자는 월 300만원 미만(1)부터 월 900만원 이상(5)까지 200만원 단위로 구분된 5개 범주 중 해당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구 소득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청년의 고립·은둔 지속 기간

청년의 고립·은둔 지속 기간은 청년 가구원이 고립 생활이나 은둔 생활을 각각 얼마나 지속해 왔는지를 묻는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고립과 은둔에 중복 해당되며, 각각의 지속 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족이 경험하는 부담의 누적 정도를 반영하고자 더 긴 지속 기간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는 청년 가구원의 고립·은둔 지속 기간에 대해 3개월 미만(1), 3개월 이상~6개월 미만(2), 6개월 이상~1년 미만(3), 1년 이상~3년 미만(4), 3년 이상~5년 미만(5), 5년 이상~7년 미만(6), 7년 이상~10년 미만(7), 10년 이상(8), 잘 모르겠다(9)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이 중 ‘잘 모르겠다’ 응답은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고립·은둔 지속 기간이 긴 것을 의미한다.

5) 고립·은둔 청년 가구원과의 관계 유형

고립·은둔 청년 가구원과의 관계 유형 변수는 응답자가 고립·은둔 청년 가구원과 어떤 관계인지를 묻는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응답자는 본인(1), 자녀(2), 손자녀(3), 형제자매(4), 배우자(5), 기타 친인척(6), 비혈연 관계(7), 기타(8) 중 하나를 선택하였다. 분석에서는 본인(1)을 1로, 그 외 모든 범주(2-8)를 0으로 재코딩한 이분형 변수로 사용하였다.

3. 자료 분석

데이터의 전처리와 기술통계 분석에는 SPSS 30.0 (IBM Co., Armonk, NY)을 사용하였다. 고립·은둔 청년과 동거하는 가족의 어려움을 유형화하고, 가족 친밀감, 가구 소득, 그리고 고립·은둔 지속 기간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Mplus version 8.8 (Muthén & Muthén, Los Angeles, CA)을 활용하였다.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립·은둔 청년 동거 가족의 어려움 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고립·은둔 청년 동거 가족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다섯 가지 지표를 사용한 잠재 프로파일(Latent Profile Analysis: LPA) 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LPA)은 연속형 지표를 바탕으로 유사한 응답 패턴을 보이는 개인들을 하위집단으로 분류하는 분석 방법으로, 집단 간 이질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Collins & Lanza, 2009; Muthén & Muthén, 2000). 잠재 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집단 수를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며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aBIC(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를 비교하였고, 값이 낮아지

는 것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LMR-LRT(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의 p 값을 기준으로 k-1개와 k개의 잠재 프로파일 모형을 비교하여 적합한 모형을 채택하였다. 또한 분류의 질을 판단하는 Entropy 지수를 통해 0.7 이상일 경우 모형의 분류가 적합하고 오류가 적음(Tein et al., 2013)을 확인하였으며, 집단 간 사례 수 비율과 해석상의 분류 정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잠재 프로파일 수를 결정하였다. 둘째, 잠재 프로파일 모형 추정 시 응답자의 고립·은둔 청년 가구원과의 관계 유형에 따른 혼입 효과를 통제하고자 해당 변수를 공변량으로 투입하였다. 또한 ‘시간적 부담’과 ‘사회 관계적 제약’ 지표 변수의 경우 지표 간 상관이 모든 잠재프로파일에서 .50 이상으로 나타나 이들 간 공분산을 허용하였고, 해당 공분산은 모든 프로파일에서 동일하게 추정되도록 제약하였다. 셋째, 최적 적합 모형이 결정된 이후, 고립·은둔 청년 동거 가족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다섯 지표에 대해 잠재 프로파일별 특성과 차이를 SPSS 30(IBM Corp., 2019)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가족 친밀감, 가구 소득, 청년의 고립·은둔 지속 기간이 잠재 프로파일 소속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Mplus의 R3STEP 방법을 사용하였다(Asparouhov & Muthén, 2014). 이 과정에서 Mplus의 기본 방식인 목록삭제(listwise deletion)가 적용되었으며,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결측률은 2.13%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IV. 연구 결과

1. 주요 변수의 특성

표 2는 고립·은둔 청년 동거 가족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다섯 지표와 가족 친밀감, 가구 소득, 청년의 고립·은둔 지속 기간 간의 상관관계와 기술통계 결과이다. 고립·은둔 청년 동거 가족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다섯 지표(심리적 부담(이해 곤란), 돌봄 부담, 시간적 부담, 사회 관계적 제약, 경제적 부담)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청년의 고립·은둔 지속 기간은 고립·은둔 청년 동거 가족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다섯 지표, 가족 친밀감, 가구 소득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가족 친밀감은 심리적 부담(이해 곤란), 돌봄 부담, 시간적 부담, 사회관계적 제약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경제적 부담과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가족 친밀감은 가구 소득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가구 소득은 고립·은둔 청년 동거 가족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다섯 지표 모두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표 2

주요 변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N=235)

Variables	1	2	3	4	5	6	7	8
1. 심리적 부담(이해 곤란)	-							
2. 돌봄 부담	.73**	-						
3. 개인 시간적 부담	.63**	.55**	-					
4. 사회관계적 제약	.61**	.55**	.80**	-				
5. 경제적 부담	.33**	.37**	.31**	.41**	-			
6. 청년의 고립·은둔 기간	.05	.73	-.01	-.00	-.08	-		
7. 가족 친밀감	-.26**	-.26**	-.21**	-.19**	-.00	-.12	-	
8. 가구 소득	-.14*	-.14*	-.20**	-.17*	-.14*	-.06	.15*	-
<i>M</i>	2.92	3.04	2.53	2.68	2.43	5.26	3.46	2.49
<i>SD</i>	1.32	1.36	1.22	1.28	1.23	1.71	1.19	1.29

* $p<0.05$, ** $p<0.01$

주. 전체 표본에서는 지표변수 간 상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잠재 프로파일별 분석에서는 개인 시간적 부담과 사회관계적 제약 변수만이 모든 프로파일에서 .50 이상의 높은 상관을 보여, 잠재 프로파일 모형 추정 시 두 변수 간 공분산만을 허용함

2. 고립·은둔 청년 동거 가족의 어려움에 따른 잠재 프로파일

고립·은둔 청년 동거 가족의 어려움에 따른 잠재 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잠재 프로파일 수를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며 모형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AIC, BIC, aBIC 지수는 잠재 프로파일 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모형 비교 검증을 위한 BLRT의 p 값은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VLMR, LMR의 p 값은 잠재 프로파일이 2개와 3개일 때 유의하였다.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 값은 3 프로파일 모형과 4 프로파일 모형에서 .9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분류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각 프로파일의 사례 비율은 모든 잠재 프로파일에서 1% 이상으로 나타나, 의미 있는 프로파일로 수용할 만한 결과를 보였다(Hill et al., 2000). 마지막으로 각 잠재 프로파일의 사례 수 분포를 고려하였을 때, 잠재 프로파일 수가 4개 이상인 모형에서는 일부 프로파일의 사례 수가 20명 미만으로 매우 적어 안정적인 해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재 프로파일의 수가 3개인 모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한편, 본 분석에서 통제변수로 포함한 응답자의 고립·은둔 청년 가구원과의 관계 유형 변수는 잠재 프로파일 분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잠재 프로파일별 어려움 다섯 지표의 평균값은 그림 1과 표 4에 제시하였다. LPA를 통해 도출한 첫 번째 잠재 프로파일은 전체 235가구 중 28가구(11.9%)로, 경제적 부담($M=1.09$)은 가장 낮았으나 심리적 부담(이해 곤란)($M=4.67$), 돌봄 부담($M=4.62$), 시간적

부담($M=3.94$), 사회관계적 제약($M=3.78$) 수준이 가장 높아 '심리사회적 집중 고부담형'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잠재 프로파일은 77가구(32.8%)로, 모든 어려움 지표에서 평균값이 1.41~1.63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다영역 저부담형'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잠재 프로파일은 130가구(55.3%)로, 모든 어려움 지표에서 평균값이 2.87~3.54로 중간 수준 이상을 보여 '다영역 중상부담형'으로 명명하였다.

표 3

잠재 프로파일 적합도

(N=235)

	잠재집단 수				
	1	2	3	4	5
AIC	3972.469	3307.841	3141.187	3098.680	3044.669
BIC	4017.444	3370.113	3227.677	3209.387	3179.593
aBIC	3976.239	3313.061	3148.437	3107.961	3055.979
VLMR		.00	.00	.15	.29
LMR		.00	.00	.16	.30
BLRT		.00	.00	.00	.00
Entropy		.92	.96	.96	.90
Group proportions n	235 (100)	76 (32.34)	28 (11.92)	16 (6.81)	18 (7.66)
(%)		159(67.66)	77 (32.77)	20 (8.51)	29 (12.34)
			130 (55.32)	79 (33.62)	36 (15.32)
				120 (51.06)	67 (28.51)
					85 (36.17)

주. AIC =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 =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aBIC = adjusted BIC; p VLMR = p values for the Vuong-Lo-Mendell-Rubin likelihood; p LMR = p values for Lo-Mendell-Rubin; p BRT = p values for Bootstrapped Likelihood-Ratio 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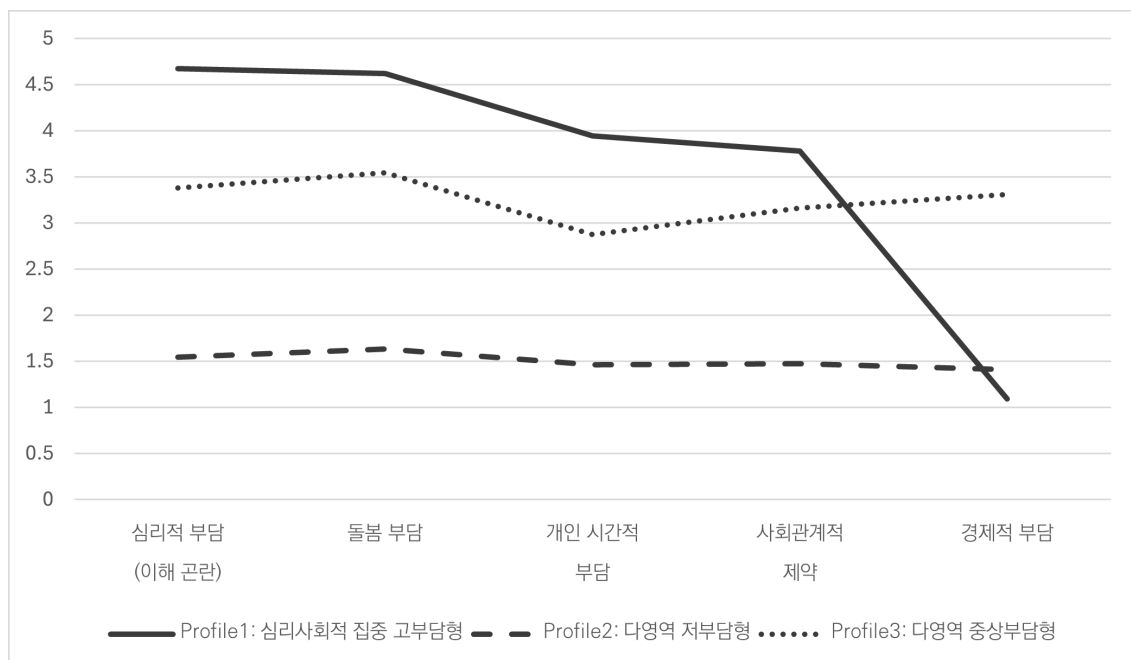


그림 1. 고립·은둔 청년 동거 가족의 어려움에 따른 잠재 프로파일

표 4

잠재 프로파일별 가족의 어려움 차이

(N=235)

		프로파일 1 (N=28)	프로파일 2 (N=77)	프로파일 3 (N=130)	프로파일 비교	
		심리사회적 집중 고부담형	다영역 저부담형	다영역 중상부담형	F	Post
심리적 부담 (이해곤란)	M	4.67	1.54	3.38	197.481***	2 < 3 < 1
	SD	(.14)	(.10)	(.08)		
돌봄 부담	M	4.62	1.63	3.54	165.575***	2 < 3 < 1
	SD	(.19)	(.11)	(.09)		
개인 시간적 부담	M	3.94	1.46	2.87	94.778***	2 < 3 < 1
	SD	(.42)	(.08)	(.09)		
사회관계적 제약	M	3.78	1.47	3.16	96.872***	2 < 3 < 1
	SD	(.37)	(.08)	(.09)		
경제적 부담	M	1.09	1.41	3.31	426.531***	1 < 2 < 3
	SD	(.09)	(.06)	(.07)		

*** $p < .001$

3. 가족 친밀감, 가구 소득, 청년의 고립·은둔 지속 기간과 잠재 프로파일 소속의 관계

가족 친밀감, 가구 소득, 청년의 고립·은둔 지속 기간과 고립·은둔 청년 동거 가족의 어려움 잠재 프로파일 소속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Mplus의 R3STEP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 친밀감과 가구 소득은 일부 프로파일 비교에서 잠재 프로파일 소속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나, 청년의 고립·은둔 지속 기간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심리사회적 집중 고부담형을 기준으로 할 때, 가족 친밀감이 높을수록 다영역 저부담형($OR=2.746$, 95% $CI[1.53, 4.92]$)과 다영역 중상부담형($OR=2.027$, 95% $CI[1.21, 3.41]$)에 속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다영역 중상부담형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다영역 저부담형에 속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OR=1.299$, 95% $CI[1.03, 1.64]$).

표 5

잠재 프로파일 소속의 영향 요인

(N=230)

	Ref. 심리사회적 집중 고부담형		Ref. 다영역 중상부담형
	다영역 저부담형	다영역 중상부담형	다영역 저부담형
	OR [95% CI]	OR [95% CI]	OR [95% CI]
가족 친밀감	2.746 [1.53, 4.92]**	2.027 [1.21, 3.41]**	1.355 [0.99, 1.85]
가구 소득	1.552 [0.98, 2.47]	1.195 [0.77, 1.86]	1.299 [1.03, 1.64]*
청년의 고립·은둔 기간	0.926 [0.68, 1.27]	0.844 [0.63, 1.13]	1.097 [0.92, 1.31]

* $p < 0.05$, ** $p < 0.01$

주1. Ref.=Reference;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주2. R3STEP 분석은 보조변수의 결측치에 대해 목록삭제(listwise deletion)를 적용하여, 결측 사례 5명을 제외한 230명을 대상으로 수행됨

V. 결 론

고립·은둔 청년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 사업 논의 및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박승민, 2024). 기존의 선행 연구는 주로 고립·은둔 청년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발생 배경, 영향 요인, 정신건강 위험 등을 규명함으로써(노가빈 외, 2021; 권혜림, 2025; 최고은, 한창근, 2025; 호수지, 배정희, 2024),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이해의 토대를 마련해 왔다. 그러나 고립·은둔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의 양상과 그 이질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는 고립·은둔 청년과 동거하는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의 다양한 잠재 프로파일을 규명하고 서로 다른 어려움 프로파일이 가족 친밀감, 가구 소득, 그리고 청년의 고립·은둔 지속 기간과 같은 가족 맥락적 요인과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세 가지의 상이한 가족의 어려움 프로파일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고립·은둔 청년과 동거하는 가족 내에서도 어려움의 양상과 수준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또한 가족 친밀감과 가구 소득은 가족의 어려움 잠재 프로파일과 유의하게 연관된 반면, 청년의 고립·은둔 지속 기간은 뚜렷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어려움이 청년의 고립·은둔 상태의 단순 지속 여부나 기간보다는 가족 내 관계의 질과 경제적 자원과 같은 맥락적 요인에 의해 보다 뚜렷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고립·은둔 청년 동거 가족의 어려움 프로파일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초기 연구 중 하나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고립·은둔 청년과 동거 가족의 어려움 프로파일이 세 가지로 나타났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집단은 다영역 중상부담형 프로파일로, 전체 표본의 과반수(55.3%)를 차지하였다. 이들은 심리적 부담(이해 곤란), 돌봄 부담, 개인 시간적 부담, 사회관계적 제약, 경제적 어려움 모든 측면에서 중간 수준 이상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집단으로, 고립·은둔 청년과 동거하는 가족이 단일한 어려움이 아닌 다차원적인 부담을 일상적으로 동시에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고립·은둔 청년을 가족으로 둔 부모나 가족 구성원이 자책감, 무력감, 슬픔 등 다양한 정서적 고통과 더불어 사회적 관계의 축소와 경제적 부담을 경험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조은영 외, 2025; 김신아, 강연정, 2021). 이는 고립·은둔 청년 동거 가족의 어려움이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단일 차원의 지원보다는 통합적 개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다영역 저부담형 프로파일은 전체 표본의 32.8%를 차지하였으며, 다섯 가지 어려움 지표 모두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 집단은 고립·은둔 청년과 동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인식하는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은 특징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고립·은둔 청년의 구체적인 맥락이나 심각성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나, 가족 친밀감과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이 프로파일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가족 내 관계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이 청년의 고립·은둔이 가족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가족 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돌봄 상황에서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높으면 가족 내 부정적 사건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논의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Hall et al., 2022; Tough et al., 2017). 특히 가구 소득이 높은 경우 다영역 중상부담형에 비해 다영역 저부담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경제적 자원이 가족의 경제적 부담만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심리적·시간적·사회관계적 부담을 전반적으로 완충하는 보호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경제적 자원이 외부 돌봄 서비스 및 치료·상담 자원의 활용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시간적·정서적 여유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가족의 전반적 부담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심리사회적 집중 고부담형 프로파일은 전체의 11.9%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심리적 부담(이해 곤란), 돌봄 부담, 개인 시간적 부담, 사회관계적 제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 집단은 핵심적인 어려움이 경제적 어려움 외에, 심리적 부담과 관계적·시간적 부담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집단과 뚜렷이 구분된다. 특히 이 집단에서는 다섯 가지 어려움 지표 중 심리적 부담(이해 곤란)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 청년의 고립·은둔을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가족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가족 친밀감이 낮을수록 다른 두 프로파일에 비해 이 프로파일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친밀하지 않은 가족 관계나 가족 내 의사소통의 부족 또는 단절이 비경제적 고부담 집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적 맥락은 돌봄 제공자가 경험하는 심리·정신적 어려움 및 돌봄 부담의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김재윤, 김주은, 진미정, 2024; Pearlin et al., 1990) 가족 내 정서적 유대와 상호 이해의 수준에 따라 고립·은둔 청년 동거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의 양상과 강도 역시 이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심리사회적 집중 고부담형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을 때 가구 소득이 유의한 영향 요인이 아니었다는 결과는, 가족이 인식하는 경제적 부담 수준이 반드시 가구 소득과 직접적으로 대응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경제적 부담이 낮게 나타난 경우에도 가족이 경험하는 심리 정서적 및 사회관계적 차원의 어려움 수준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경제적 자원이 가족의 부담을 완충하는 보호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으나, 이러한 자원이 가족 간 이해 부족이나 의사소통 단절로 인한 비경제적 어려움까지 충분히 상쇄하지는 못함을 시사한다. 결국 고립·은둔 청년 동거 가족의 어려움은 경제적 수준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다차원적 특성을 가지며, 특히

가족 간 관계의 질이 저하된 맥락에서는 심리적·관계적·시간적 부담이 집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경제적 자원이 존재하더라도 가족 내 정서적 유대와 상호 이해가 부족할 경우 그 보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고립·은둔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가족 친밀감이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조절하는 핵심적인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가족 친밀감과 가구 소득은 고립·은둔 청년 동거 가족의 어려움 프로파일과 유의한 연관이 있는 반면, 청년의 고립·은둔 지속 기간은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고립·은둔 기간이 길어질수록 개인 수준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삶의 만족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김성아, 김문길, 임덕영, 노혜진, 노현주, 2023; Choi, Choi & Jang, 2025; Nonaka, Shimada & Sakai, 2018)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고립·은둔 지속 기간이 당사자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회귀·난치성 질환자 가족 대상 연구에서 돌봄 기간과 객관적 가족 부담 간의 관계가 선형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정서적 부담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어 지속 기간과 가족의 어려움 간 관계가 단순히 시간의 증가로 설명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최인희, 신현기, 2015). 나아가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고립·은둔 상태의 단순한 지속 기간보다는 가족 내 관계의 질과 가구의 경제적 자원과 같은 가족 맥락적 요인에 의해 보다 크게 영향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립·은둔 청년 가족을 위한 지원이 획일적인 방식으로 제공되기보다는, 가족이 처한 관계적·경제적 맥락과 어려움 프로파일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심리사회적 집중 고부담형 가족에게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교육이나 가족 상담과 같이 가족 관계 개선을 중심으로 한 개입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다영역 중상부담형 가족에게는 이러한 관계적 개입에 더하여, 가족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생활비 보조, 고립·은둔 청년의 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과 같은 경제적 지원을 기존 복지제도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한편 다영역 저부담형 가족의 경우 현재의 낮은 부담 수준이 중상부담형으로 심화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예방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초기 위험군을 선별하여 개입하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는 고립·은둔 청년과 동거하는 가족을 동질적인 집단이 아닌 이질적 특성을 지닌 여러 하위 집단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본 연구의 핵심적인 함의를 뒷받침한다.

최근 고립·은둔 청년 가족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2025년 경기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부모(가족)교육 및 자조모임(경기도미래세대재단, 2025), 「2025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지킴이 양성교육(재단법인 청년재단, 2025)」과 같이 고립·은둔 청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 이해 및 의사소통 교육, 상담, 자조모임 운영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고립·은둔 청년의 회복 과정에서 가족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가족이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이해 곤란)과 사회관계적 제약 등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원 체계는 고립·은둔 청년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과 가족 대상 지원이 통합 체계로 운영되기보다는 개별 사업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확인된 가족 어려움의 이질적인 프로파일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접근으로까지 확장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에서는 고립·은둔 청년 가족의 이질적인 어려움 유형을 고려한 차별화된 개입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과 가족 지원을 연계한 통합적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가족과 청년을 하나의 상호작용적 체계로 이해하는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발굴 및 참여 유도가 어려운 고립·은둔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모를 매개로 청년 당사자의 주요 어려움, 고립·은둔 계기, 정책적 지원 요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선별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선별 및 평가 결과에 따른 개별 특성과 어려움 수준에 따라 전문 상담 기관과의 연계,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서울 청년 기지개 센터의 사회참여 프로그램, 일 경험 프로그램 등 지역 내 청년 지원 서비스로의 체계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고립·은둔 청년과 부모가 각각 이용할 수 있는 상담 지원을 통합 바우처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청년과 가족을 포괄하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가족의 관계적·경제적 맥락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단기적·일회성 개입을 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방적 지원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몇 가지 한계점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 자료의 응답자는 고립·은둔 청년 본인, 부모, 형제자매 등 여러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고 있어, 응답자의 고립·은둔 청년 가구원과의 관계 유형이 다양하다는 자료적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가 분석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잠재 프로파일 분석 및 R3STEP 분석 단계에서 응답자의 고립·은둔 청년 가구원과의 관계 유형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나아가 분석 결과의 강건성 검증을 위해, 통제변수 포함 모형과 제외 모형을 비교한 분석과 고립·은둔 청년 본인 응답자 포함 모형과 제외 모형을 비교한 분석을 추가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 모든 모형에서 잠재 프로파일의 수, 분류 적합도 지수, 각 잠재 프로파일별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응답자 유형의 다양성이라는 자료적 한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도출된 잠재 프로파일 구조와 주요 결과가 해당 변수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가 청년과 맺고 있는 특정 관계 유형에 따라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고립·은둔 청년의 부모 혹은 형제자매 등으로 분석 대상을 한정하여, 고립·은둔 청년과의 관계 유형이 가족의 어려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가족 친밀감, 가구 소득, 고립·은둔 청년의 지속 기간만을 사용하여 가족의 어려움 잠재 프로파일 소속과의 관계를 살펴보았기 때문

에, 가족 내 다른 특성들의 영향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고립·은둔 청년 부모의 학력, 연령, 경제활동 상태, 형제자매 유무 등 다양한 가족 특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가족의 어려움 프로파일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2022년 서울특별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 거주 가구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표본의 대표성과 일반화 가능성에 한계를 지닌다. 이는 지역적 맥락이 결과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 단위의 고립·은둔 청년 가족을 포괄한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 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고립·은둔 청년 동거 가족 내에서도 어려움 양상과 수준이 이질적으로 나타남을 규명하고, 가족 친밀감과 가구 소득이 이러한 이질적인 프로파일 소속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고립·은둔 청년 동거 가족의 어려움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및 개입 전략 개발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경기도미래세대재단 (2025, 07. 28). 2025년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가족을 위한 부모교육 및 자조모임 참여자 모집 [공지사항]. <https://youth.gg.go.kr/gg/index.do>에서 2026년 2월 23일 인출.
- 곽미선, 박지영 (2024). 사회적 고립 및 은둔의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청년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31(8), 195-218. doi:10.21509/KJYS.2024.08.31.8.195
- 권혜림 (2025). 고립·은둔 청년의 자살 및 자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범죄정보연구**, 11(1), 27-46. doi:10.33563/kscia.2025.11.1.2
- 김성아 (2023).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 방안. **보건복지포럼**, 319, 6-20. doi:10.23062/2023.05.2
- 김성아, 김문길, 임덕영, 노혜진, 노현주 (2023).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연구** (용역보고서 2023-124).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신아, 강연정 (2021).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갈등과 영적 경험에 관한 연구. **복음과 상담**, 29(1), 41-74. doi:10.17841/jocag.2021.29.1.41
- 김재윤, 김주은, 진미정 (2024). 가족돌봄청년의 가족관계 만족도와 우울: 돌봄 부담감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9(3), 3-22. doi:10.21321/jfr.29.3.3
- 노가빈, 이소민, 김제희 (2021). 청년 은둔형 외톨이의 경험과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73(2), 57-81. doi:10.20970/kasw.2021.73.2.003
- 김혜원 (2022).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의 특성 및 은둔 경험 분석. **청소년학연구**, 29(10), 1-32. doi:10.21509/KJYS.2022.10.29.10.1
- 맹성준, 한창근 (2019). 가계부채가 가족갈등 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산과 소득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6(1), 57-81. doi:10.15855/swp.2019.46.1.57
- 박규범, 박예은, 윤범식, 최다솜 (2024). **2024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정책연구보고 2024-05). 수원: 경기복지재단.
- 박승민 (2024.12.26.).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현황과 고려사항. **NABO Focus**, 제85호. 국회예산정책처.
- 백형태, 김봉년, 신민섭, 안동현, 이영식 (2011). 부모 작성용 은둔형 외톨이 선별 도구 개발.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2(4), 262-270. doi:10.5765/jkacap.2011.22.4.262
- 서울특별시 (2022).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실태조사**. 서울: 서울특별시.
- 유민상, 신동훈 (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연구보고 21-R0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이상욱, 김재희, 박일연, 이선미 (2023). 제2차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정책연구 보고서 2023-05). 광주: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 이은지 (2021).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 생각의 관련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은 (2025). 고립·은둔 청년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5(3), 1105-1118. doi:10.22251/jlcci.2025.25.3.1105
- 재단법인 청년재단 (2025.01.20.)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킴이 양성교육 참여자 모집 [재단 공지]. 청년재단. <https://kyf.or.kr/>에서 2026년 2월 23일 인출.
- 정세정, 고혜진, 김기태, 김동진, 김성아, 오욱찬, 이아영, 이해정, 임덕영, 신영규, 하은솔, 한겨레, 김근혜 (2025).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용역보고서 2025-07). 세종: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영아, 이윤희, 김지연, 곽미선 (2024). 은둔 고립 청년 지원 프로그램 실태 분석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4(22), 375-392. doi:10.22251/jlcci.2024.24.22.375
- 조은영, 강순화, 김지영 (2025). 은둔형 청년과 은둔형 가족을 둔 청년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미래사회**, 16(3), 51-68. doi:10.22987/jifso.2025.16.3.51
- 최고은, 한창근 (2025). 아동·청소년기 부정적 경험이 청년의 과거 및 현재 고립은둔 경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32(5), 405-433. doi:10.21509/KJYS.2025.05.32.5.405
- 최인희, 신현기 (2015). 희귀·난치성질환자 가족의 가족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지체. 중복.건강장애연구**, 58(3), 55-81. doi:10.20971/kcpmd.2015.58.3.55
- 김아래미, 최영준, 김성아 (2023). 청년 은둔의 사회경제적 비용. **사회복지정책**, 50(4), 123-143. doi:10.15855/swp.2023.50.4.123
- 호수지, 배정희 (2024). 아동·청소년기의 부정적 경험이 은둔 청년 발생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51(4), 69-104. doi:10.15855/swp.2024.51.4.69
- 황순길, 여인중, 남재량, 장미경, 허묘연, 권해수, 박정민, 손재환, 홍지영 (2005).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부적응 청소년 지원방안**. 서울: 청소년위원회.
- Asparouhov, T., & Muthén, B. (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329-341. doi:10.1080/10705511.2014.915181
- Choi, E., Choi, S., & Jang, S. (2025). Unmet Health Care Use Among Socially Withdrawn Youth (Hikikomori) in South Korea: Cross-Sectional Survey Study. *JMIR Public Health Surveillance*, 11. doi:10.2196/79043
- Collins, L. M., & Lanza, S. T. (2009). *Latent Class a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With Applications in the Social, Behavioral, and Health Sciences*. Hoboken: Wiley.

- Dong, B., Li, D., & Baker, GB. (2022). Hikikomori: A Society-Bound Syndrome of Severe Social Withdrawal. *Psychiatry and Clinical Psychopharmacology*, 32(2), 167-173. doi:10.5152/pcp.2022.22429
- Dworkin, J., Cai, Q., LeBouef, S., & Hruska, E. (2022). College family coping and disruptions during COVID-19: A consideration of the ABC-X model of family stres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53(4), 502-522. doi:10.3138/jcfs.53.4.04
- Hall, L. R., Sanchez, K., da Graca, B., Bennett, M. M., Powers, M., & Warren, A. M. (2022). Income differences and COVID-19: Impact on daily life and mental health. *Population Health Management*, 25(3). doi:10.1089/pop.2021.0214
- Laursen, B., & Hoff, E. (2006).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pproaches to Longitudinal Data. *Merrill-Palmer Quarterly*, 52(3), 377-389. doi:10.1353/mpq.2006.0029
- Lum, H. D., Lo, D., Hooker, S., & Bekelman, D. B. (2014). Caregiving in heart failure: relationship quality is associated with caregiver benefit finding and caregiver burden. *Heart & Lung*, 43(4), 306-310. doi:10.1016/j.hrtlng.2014.05.002
- McCubbin, H. I., & Patterson, J. M. (1983). The family stress process: The Double ABCX Model of family adjustment and adaptation. In H. I. McCubbin, M. Sussman, & J. M. Patterson (Eds.), *Social stress and the family: Advances and developments in family stress theory and research* (pp. 7-37). New York: Haworth.
- Mplus (version 8.8). [Computer software]. Los Angeles, CA: Muthén & Muthén.
- Muthén, B., & Muthén, L. K. (2000). Integrating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82-891. doi:10.1111/j.1530-0277.2000.tb02070.x
- Nonaka, S., Shimada, H., & Sakai, M. (2018). Assessing adaptive behaviors of individuals with hikikomori (prolonged social withdrawal):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parent-report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e and Mental Health*, 11(3), 280-294. doi:10.1080/17542863.2017.1367411
- Pearlin, L. I., Mullan, J. T., Semple, S. J., & Skaff, M. M. (1990). Caregiving and the stress process: An overview of concepts and their measures. *The Gerontologist*, 30(5), 583-594. doi:10.1093/geront/30.5.583

- Tein, J. Y., Coxe, S., & Cham, H. (2013). Statistical power to detect the correct number of classes in latent profile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0(4), 640-657. doi:10.1080/10705511.2013.824781
- Tough, H., Brinkhof, M. W., Siegrist, J., & Fekete, C. (2017). Subjective caregiver burden and caregiver satisfaction: The role of partner relationship quality and reciprocity.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98(10), 2042-2051. doi:10.1016/j.apmr.2017.02.009
- Van Horn, M. L., Bellis, J. M., & Snyder, S. W. (2001). Family resource scale-revised: Psychometrics and validation of a measure of family resources in a sample of low-income families.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19(1), 54-68. doi:10.1177/073428290101900104
- Zarit, S. H., Polenick, C. A., DePasquale, N., Liu, Y., & Bangerter, L. R. (2019). Family support and caregiving in middle and late life. In B. H. Fiese, M. Celano, K. Deater-Deckard, E. N. Jouriles, & M. A. Whisman (Eds.), *APA handbook of contemporary family psychology: Applications and broad impact of family psychology* (pp. 103-119).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doi:10.1037/0000100-007

ABSTRACT

Characterizing profiles of family burden among families co-residing with socially isolated and withdrawn young adults

Kim, Minji* · Kim, Hyoun K.**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latent profiles of the burden experienced by families living with socially isolated and withdrawn young adults and examine heterogeneous characteristics across these profiles. Family burden was operationalized using five indicators—psychological burden, caregiving burden, time constraints, social restrictions, and economic burden—and the study examined whether family closeness, household income, and the duration of social isolation and withdrawal predicted latent profile membership. Using data from the ‘2022 Seoul Survey on Isolated and Reclusive Young Adults’, this study analyzed 235 families co-residing with socially isolated and withdrawn young adults. Latent Profile Analysis identified three distinct profiles of family burden: a High Psychosocially Concentrated Burden type (11.9%), a Multi-domain Low Burden type (32.8%), and a Multi-domain Moderate-to-High Burden type (55.3%) profiles. Furthermore, family closeness and household income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latent profile membership, whereas the duration of social isolation and withdrawal showed no significant associ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family burden in households living with socially isolated and withdrawn young adults is heterogeneous rather than uniform, underscoring the need for tailored family support policies and programs that consider families’ relational and economic contexts.

Key Words: families of socially withdrawn youth, family burden, family closeness, household income, latent profile analysis

*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Human Life & Innovation Design, Integrated Master’s & Ph.D Program Student, First Author

**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Human Life & Innovation Design, Professor, Corresponding Author, hyoungkim@yonsei.ac.kr